

전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도 감사

지방시대 계획·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고... 중점 추진사업·대통령 공약사업 모두 계획에 담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한 자리에 모였다. 임상규 행정부지사 등 전북도 소관 실·국장,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과 이명연 균형발전특별위원장, 김성수·김정수·박정규·송승용·염영선·오현숙·전용태·나인권·서난이·윤수봉 전북도의원, 전북도교육청 한공수 정책국장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신규 법정계획으로,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중양부처에서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지방시대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이 날 보고회는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광역기반 전북연구원)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광역기반 캠퍼스통합기술원)'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전



전북도는 지난 18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라북도의 특색과 강점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우선, 전라북도 지방시대계획은 정부의 5대 전략(실질적 자치분권, 과감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발전, 공정한 환경조성) 22개 핵심 과제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역점사업과 이차전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금융중심지 등 대통령 지역공약 과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한, 통합법 시행에 따라 새로 포함된 지역 공교육 발전 등 교육개혁 부

아 관련하여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지자체권 분야에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권한 확대 등 자치기반 마련방안을 중점적으로 담는다.

한편 '전라북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담는다. 인접 광역시가 없는 독자권역인 전북, 강원, 제주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타 시·도에 협력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전북 내 혁신기관 회의, 산업연구원 컨설팅, 중앙부처검토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그간수소내

지(전북·강원), 특수목적용 모빌리티 산업(전북·전남) 등 산업분야, 새만금-전주-대구 고속도로(전북-경북) 등 SOC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사업을 발굴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수립 중인 계획의 중간점검과 함께 참석자들의 실질적·발전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지닌다. 최종 계획안은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새로이 구성될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역의 예산 반영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보고 등의 법적절차를 밟게 되며, 매년 추진실적 점검과 중앙부처 환류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기대된다.

이에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수립된 의견을 반영해 전북도의 중점사업 추진과 대통령 공약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광역기반 전북연구원)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광역기반 캠퍼스통합기술원)'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전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감사원의 전북도 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1일부터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실시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 1·2·3과 인력 모두를 투입해 '잼버리 감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력은 30~4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는 실지 감사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감사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 감사보고서 공개 등의 순으로 끝을 맺는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

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애초에 폭염과 배수, 기반 시설 조성이 어려워 야영에 부적합한 새만금 매립지를 선정했는지 파행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대회 부지 선정 배경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활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들의 잼버리 관련 위유성 해외연수 논란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사대상 공무원은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로 인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시로 착수한 도 감사관실의 셉트 특검감사는 모두 중단된다.

/뉴시스

전북도, 중국 관광객 유치 총력

중국인 방한 단체여행 재개... 상하이 K-관광 로드쇼 등 참가

전북도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전면 허용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에 힘쓴다.

도는 지난 10일 중국 정부의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전면 재개 발표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중국전담여행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유치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지난 10일 중국 정부의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전면 재개 발표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중국전담여행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유치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전북도는 내달 15~17일에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에 참가, 전라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광상담회 개최를 통해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 대비 본격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이날 말에는 중국 예술분야 대표단(20여 명), 12월에는 산둥성 교육 관계자(70여명)의 전북관광 캠퍼스를 진행하여 이후 대규모 단체관광을 유치하는데 전초전으로 삼을 예정이다.

11월에는 중국 시안, 칭두 등 신(新)1선 도시를 타깃으로 중국 현지 '전북관광 페스타'를 열고 관광교류 협약결, 전북 관광상품 설명회 및 현지 여행업체 대상 기업 간 거버넌스(B2B)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틱톡 등에 전북 관광자원 소개와 중화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한유망에 관광상품 홍보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결제 편의 도모를 위하여 도내 사후면세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연동하여 관광 수용태세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의 바닷길, 하늘길 재개·증편에 따라 군산 석도페리, 무안공항 등과 협력하여 전북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내 중국 전담여행사는 한식, 한옥, 한복, 태권도 등 전북에 특화된 한류자원을 활용하여 중국인 트렌드에 맞는 전북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단체여행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전북을 찾은 해외 방문객 246만명 중 중국 관광객은 101만여명으로 41%인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전북도는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중국 산둥성 및 쓰촨성 현지에서 관광설명회 및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고, 5월에는 산둥성 문화·체육 관련 대표단이 직접 전북을 방문하여 청소년 문화교류 및 태권도 관련 관광상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중국인 방한 단체여행 재개로 인해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활력이 기대된다"며,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북을 방문해 전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대학생 직무인턴 참여자 수료식·간담회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8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하반기 대학생 직무인턴 참여자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직무인턴사업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직무체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대학생 직무인턴사업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7주간 진행됐으며, 공공기관·기업 37개소에 154명의 대학생이 배치돼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청년 취업과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 창업 기업가 정신 특강, △청년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선배 창업가 특강', △국내 기업·기관 채용 및 면접 동향, 올바른 면접법 등 '취업 성공전략 특강' 등도 진행됐다.



전북도는 직무인턴 수료자의 의견수렴 설문을 통해 나온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년도 사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 과장은 "새만금 일부 산업단지가 지난 6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7월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IS그룹 등 대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새만금이 세계적인 산업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만금 산업단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산업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 취업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어업인에 52억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전북도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가경영 부담 가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에게 총 52억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제유가가 급등에 따른 어가 경영 부담

가중에 따라 면세유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업인으로 연근해 및 내수면 허가어선, 양식장관리선, 어획물운반선, 양식장, 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급금액은 2022년 면세유 평균가에서 2021년 면세유 평균가 차액의 55%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유는 200원/L, 휘발유는 207원/L, 중유는 172원/L을 지원한다.

도내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업인은 총 2,801건으로, 허가어선 및 어획물운반선 1,940건, 양식장관리선 733건, 내수면양식장 128건으로, 면세유 차액분을 지원받아 어가경영 안정

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1년 안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국제·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어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업종별 성여기가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선어업 어업인들이 있을 수 있어 하반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상반기 29억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2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2023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군산대 2학기 원광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표현력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과목에 맞설이치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론과 면접(교양과목) 담당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유변협회 전북회장
-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시낭송 지도자
- 저서 "365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 | |
|-----------------|---|----------------|
| 학교별 | 주요과정 | 지역별(자유선택) |
| 전주교육대학교 |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 전주, 임실, 완주, 김제 |
| 우석대학교 |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 전주, 완주, 진안 |
| 원광대학교(익산) |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웃음코칭(주) | 익산, 논산, 김제 |
| 군산대학교 |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야), 스피치지도사(수) | 군산, 서천, 부안 |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 정읍, 고창 |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 남원, 장수, 순창 |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